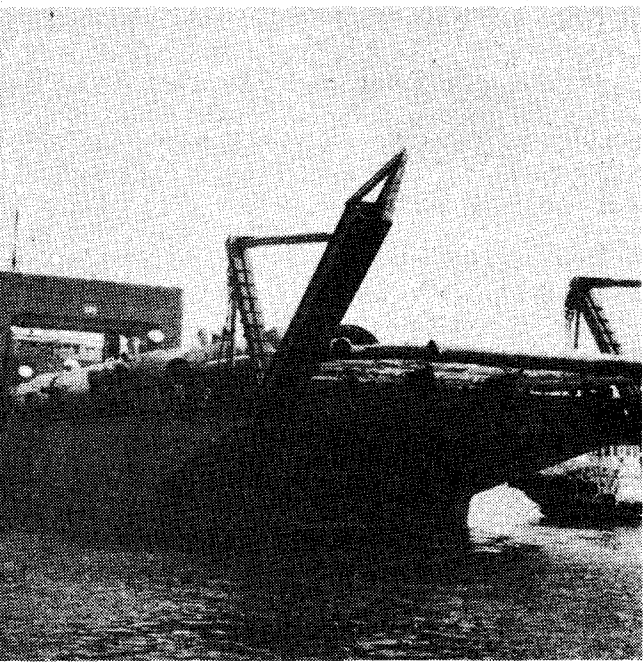


화한 무형의 사슬

로기 검토와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 사회

서언

이데올로기가 현실적으로 존고 있는 지배를 정당화시키면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를 존속시키고 있기 때문이

리의 경우 경제력에서의 지배을 로기하는 주요 경제성장에 대대강의 창출에서 주어져 왔경제성장이 갖는 계급적 내용장된 채 자본의 축적과정의 성장은 민중에게 보다 나경제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매국 표현되면서 자기들의 계적성전국민적 내용을 갖는 것이이기가 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계급적 내용 갖는 것이며 모든 민족구성원평등한 경제적 복지를 약속

는 자본의 정치적 요구는 노동자의 현실생활상의 요구의 증대가물가 인상에 뒤따르고 노동자계급의 자구적인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노동자들의 노임의 상승에 의해출발된 것인 양, 결과와 원인을전도시키면서 오늘날의 임금억제정책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이란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임여가 보다 많은 자본가집단, 지배집단으로의 귀속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경제성장은 자본이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보다 많은 경제인여의 취득으로 경제활동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보다 높은 경제성장은 보다 유리한 자본에 의한 경제성장 결과에의 참여, 보다 많은 경제인여에의 자본 참여를 보여 주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자본주의의 국민경제에서, 보다 높은 성장의 실현은 자본에 의한 자본의 보다 많은 경제인여의 실현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성장은 마치 전민족구성원 또는 국민구성원의 분배에의 참여의 증대인 양 현실은 왜곡되고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제성장결과와 일방적 편제 내지는 불균등한 분배는 날로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곡하여 경제성장의 성과가 기층국민에게 분배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와같은 성장결과에의 국민적 참여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켜 물가등가와 자본에의 부담을 가중시키

보다 적은 경제인여의 실현을 반영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Ⅲ. 보다나은 분배의 실현과 자립 경제의 확립을 위하여

경제제도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분배의 실현을 위한 길은 자본주의적인 경제원리의 청산과 이것의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전면적 개편에서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체제적 재편의 길이 아니라라도 보다 나은 평등한 분배의 실현의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민경제의 자립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재생산에서 국내시장을 국민경제의 재생산의 중요조건으로 만듦으로써 국내시장의 국민경제의 재생산을 위한 배분을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재생산에서 국내적조건을 재생산실현의 중요조건으로 갖는 것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업·산업의 분업관련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 기업 및 산업간의 가치 및 소재보존의 관련 심화는 국민경제에 있어 자립적인 경제기반의 심화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관련속에서 가치보존과 소재보존의 상호관련은 보다 균등한 분배관계의 실현으로써 보다 균형있는 소득분배관계의 실현으로 된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력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국민경제의 성장으로 되어서 성장을 정당화하고 그 결과 분업관련이 없는 불균형적 성장의 추

의외존과 민중소의로 뒤편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가 대중에게 보다 쉽게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구조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제시될 경제성장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대외의존과 민중의 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도출하면서 이것을 정당화 시켜가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것은 현재에 있어서는 5%이내의 임금인상요구만의 인정이라는 임금인상요구의 역제로 되면서 그것이 갖는 계급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런 것들은 국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수출에 대한 요구의 계기로 될 때 그 본질을 보다 적나라하게 제시하게 된다.

그동안 수출은 국민경제의 성장을 밑받침 하면서 국민적인 내부적 분배관계의 불균형함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으로 되어 왔다. 소리 높여 제시될 수출입국이라는 구호는 바로 수출입국의 지배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수출입국의 논리는 국민경제의 대외의존과 저노임을 정당화 시키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였다. 성장주의 한국경제에서 국민경제의 성장을 밑받침하면서 공업화, 비록 그것이 국민경제를 대외의존적이고 매관적인 것으로서 귀결시키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 과정은 국민적인 희생을 정당화시키는 기본논리였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그와같은 전국민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만이 전국민적인 수혜를 보장한다는 논리, 한국경제는 수출이 신장이 없으면 이제 파국이라는 매관적인 논리-에의 아무런 검토없이 이것을 정당화 시키면서 그와 같은 매관적인 비자립적 논리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정당화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족 경제의 논리 정립은 단순한 순수경제적 논리의 정립이 아니라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라는 민족적인 분단극복의 요구까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남북합착에 의해 민족적으로 통일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북의 접촉은 이와같은 통일을 위한 논리의 정립위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통일은 당위적인 필요로 제기되고는 있으나 그것에 이르는 현실적인 길은 어느쪽에서든 추구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로 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민족통일지향적인 노력을 제시하고 있지않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남북합의문서의 국회통의과정을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제적측면에서 통일은 최소한의 것으로서는 남북을 합해 민족적 생활양식 회복의 문제이고 최대한의 것으로서는 남북을 하나로 한 자립적 민족경제 실현의 문제이다.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에서는 민족적 생활양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그것은 오랜 민족생활의 역사적 축적이며서 오늘의 상황에 의해 규정된다." 그것이 한 민족의 오랜 생활의 역사적 축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이다.

먼저 그것은 한 민족의 생활에서 뿌리내린 지역의 자연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의미에서이

성장논리, 민족주의 주범

다. 한 민족은 "그것이 좋건 나쁘건 일정한 지역으로서의 경제적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기초하여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자연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좁은 의미의 자연적인 제약이다. 기후 및 하천의 존재와 그것의 위치, 가용수량의 정도 그리고 그것의 계절적 분포는 그 지역에 서 생존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생활을 규정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것들은 사회적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일수록 보다 규정적이다. 그것 다음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의 생활양식은 그들이 생활영역으로 하고 있는 일

정지역의 자원의 부존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가용자원이 어떠한 형태로 얼마만큼 존재하는가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생활양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의미에 있어서 가용자원은 한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생산력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석유의 부존지역이 지난날에는 인간이 활용할 수 없는 황무지였지만 이제는 사회적 생산력수준의 변화속에서 사용가능한 막대한 부존자원을 지닌 것과 같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은 이것을 말해준다. 어쨌든 부존자원의 존재양식과 그것의 이용은 사회적 생산력과 함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이런 오랜 생활의 역사적 축적이 한 민족의 생활양식으로 되면서 그들의 생활양식, 그 가운데서 가치의식을 결정하게 된다. 그것은 이와같은 자연적인 피계약성에 더하여 독자적인 발전논리를 가지면서 완결되는 생활의 제조건을 규정하기 마련이다. 곧 광의의 자연적 조건에 의해 원초적으로 규정되면서도 구체적인 생활의 축적을 통한 생활양식으로서의 자기기준을 가지면서 이것으로써 자연에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사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서로 얽힌 관계의 발전, 즉 나선형적인 발전의 연속속에서 한민족의 생활양식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간에 얽힘속에서 변증법적 발전의 과정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한민족의 생활양식은 비단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사회적 생산력수준의 반영으로서 인간간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또한 제약된다. 그것은 크게는 사회구성체적인 것 이면서 작게는 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인여를 둘러싼 인간간의 사회적 관계, 곧 지배계급에 의한 착취의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족적 생활양식이란 민족적 삶이 영위되고 있는 지역의 풍토, 기후 그리고 자원의 부존상태에 의해 기초되어지면서 그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종공동체안에서의 누대에 걸친 인간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의 계승으로 되고 오늘날의 상황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서의 생활이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민족적 생활양식은 역사발전의 부차적 동인 그 자체로 된다"는 것이

다. 민족적 생활양식의 확보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과정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실현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는 "말하자면 민족의 자주 자립과 민족적 생활양식의 유지라는 민족주의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립적 경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 민족이 자기 민족의 민족적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외부적 제약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기초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외적 표현에서만이 아니라 민족구성원 내부의 문제로써 민족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중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경제여야한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재생산구조에서 경제활동 결과의 국민적 확산메카니즘이 굳건히 존

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립경제의 개념은 우리와 같이 식민지 종속을 경험한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제시되는 식민지 지배의 일방적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지난날에 식민지 종속을 경험한 민족에게 진정한 민족해방을 경제적으로 보장하고 식민지 종속하 경제적 수탈의 직접적 대상이었던 이들 나라의 광범한 민중에게 보다 나은 경제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이들 자립경제의 개념은 역사적인 구체성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내포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 쓰고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것은 한 사회에서 생산된 경제인여를 대외적으로 누출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는 경제인여의 국민적 확산메카니즘의 정착화에 의한 사회적 확대과정의 정착이다. 셋째로 자립경제에 대한 요구는 국민경제구조가 국내적으로 완결되는 산대적 자급자족체계로 뚝뚝 끊어 국민적의 기본수요를 나라안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립경제가 충족해야 할 일차적 요구 그 자체이다. 넷째로 자립경제는 좁은 의미의 민족경제와 국민경제가 하나로 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민족경제에 의한 국민경제의 연속속에서 한민족의 생활양식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간에 얽힘속에서 변증법적 발전의 과정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한민족의 생활양식은 비단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민중적인 길에서 국민경제의 종속적 과정에서 주어진 지배이데올로기는 철저히 견결하게 청산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민족구성원 모두가 보다 잘 살 수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창출을 위한 노력은 남북 민족구성원의 남북을 관철하는 창조적 결합에 의해 공동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Ⅳ. 결론

민족의 통일에 장애로 되고 민족구성원의 큰 부분으로 되는 민중적 이해와 합치하지 않는 지배이데올로기는 민족의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적 실천의 과정에서 철저히 청산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민족자본의 진정한 민족계자본으로의 전환이다. 이와같은 남북의 통일에 의한 참된 민족적 힘을 민족을 위한 길에서 다시 묶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 과정처럼 쉬운것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기희생을 성공하는 사회적 실천의 과정이다. 주어진 과제앞에서 자기가 맡아야 할 과제를 다시 되새기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탕위에 민족과 민중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정립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박 현 채

(조선대학교·사회학)

을 남기려고 하는가!

특히 해내기도 했습니다.

대우가 이처럼 개척하기 힘든 미수교국이나 오지의 나라를 선택 때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산업외의 첨병역할을 해내고자 함이며 나아가 한겨레의 가장 큰 강인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대우가 선도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그대우가 창립 이후 꾸준히 지켜온 '공존공영'의 정신 때문입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기업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리기업진출을 해지 않은 미지의 나라를 택한 것입니다.

술의 나라, 일본 입성(入城)

대우의 해외개척사는 미수교국이나 오지의 나라뿐 아니라 선진국 각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우는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 최초로 일본의 최첨단 전자통신 연구단지인 소프트 리서치 파크(Soft Research Park)에 자적인 연구센터를 만들게 됨으로써 기술보호의 벽이 세계 최고 높다는 일본에 대우의 기술 잠재력을 인정받아 당당히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센터는 미국 실리콘 밸리와 구 소련의 연구소다 함께 국내외의 연구기술과 해외의 정보가 만나는 대우 기술창조의 신 포스트가 될 것입니다.

대우는 해와 함께 캐나다와 호주에 대규모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 선진 각국과의 대등 경제협력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대우는 현재, 중국의 복주(福州) 냉장고 공장 설립, 헝가리의 온실, 북한의 남포공단 조성 등 공존공영을 위한 합작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의 43개 투자법인 운영과 더불어 39개의 신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전의 신화'를 창조하는 사람들

"해외시장 개척이란 한마디로 시작도 끝도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 나라의 민족, 풍습,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만 버지니를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상술이 능한 인도시장 같은 곳을 개척하기란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지요. 인도에서 일한 지난 5년, 찌는 듯한 더위와 풍토병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보면서 생각하곤 했지요. 저보다도 더 열악한 오지의 나라에서 고생하는 동료들, 많은 우리 대우가족들의 소명의식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고요."라고 자사생활을 얘기하는 (주)대우의 도정원 과장 -

도과장의 말처럼 오늘날의 대우가 있기까지 지난 44년세기 대우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대우인들의 땀방울이 알알이 스며 있습니다. 1980년대초, 북예멘 지사에 근무했던 김승천 대리(현재 대우자동차 부장)도 살아있는 신화를 갖고 있는 한 사람. 김대리는 그곳 주민들이 알라에게 예배할 때 씹는 '까트'라는 풀을 신성시한다는 것을 알고 까트를 제일 잘 씹는 외국인인 되기로 결심하고 구역질을 참아가며 씹고 또 씹어, 마침내 압둘라라는 거상(巨商)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김대리의 까트 씹는 솜이 예멘인들 보다 더 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리의 얘기는 대우의 해외개척사에 쏘여져 있는 수많은 일화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난 '89년 파나마 사태 때 앞날과 약탈, 총질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사의 상품창고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 채 목숨을 걸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피박 버틴 파나마의 대우인들, 무더운 맹벌 아래 입찰에 늦지 않으려고 온 몸이 소금기가 허혈계 기도도록 달리는 바람에 아내가 아직도 음식에 소금넣기를 꺼린다는 대우인, 전쟁터를 누비며 낯선 땅을 개척하다가 마나인 타국에서 스러져간 대우인... 이처럼 열사의 땅에서 도래바람과 싸우면서도 우리 민족 특유의

끈기로 세계를 놀라게한 대우인들, 끊임없는 창조적 연구개발로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우리 기술인들. 밤을 밝혀 서류와 씨름하면서 단 한 문이라도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눈을 부릅뜨는 대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몸을 아끼지 않는 '도전의 신화'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화는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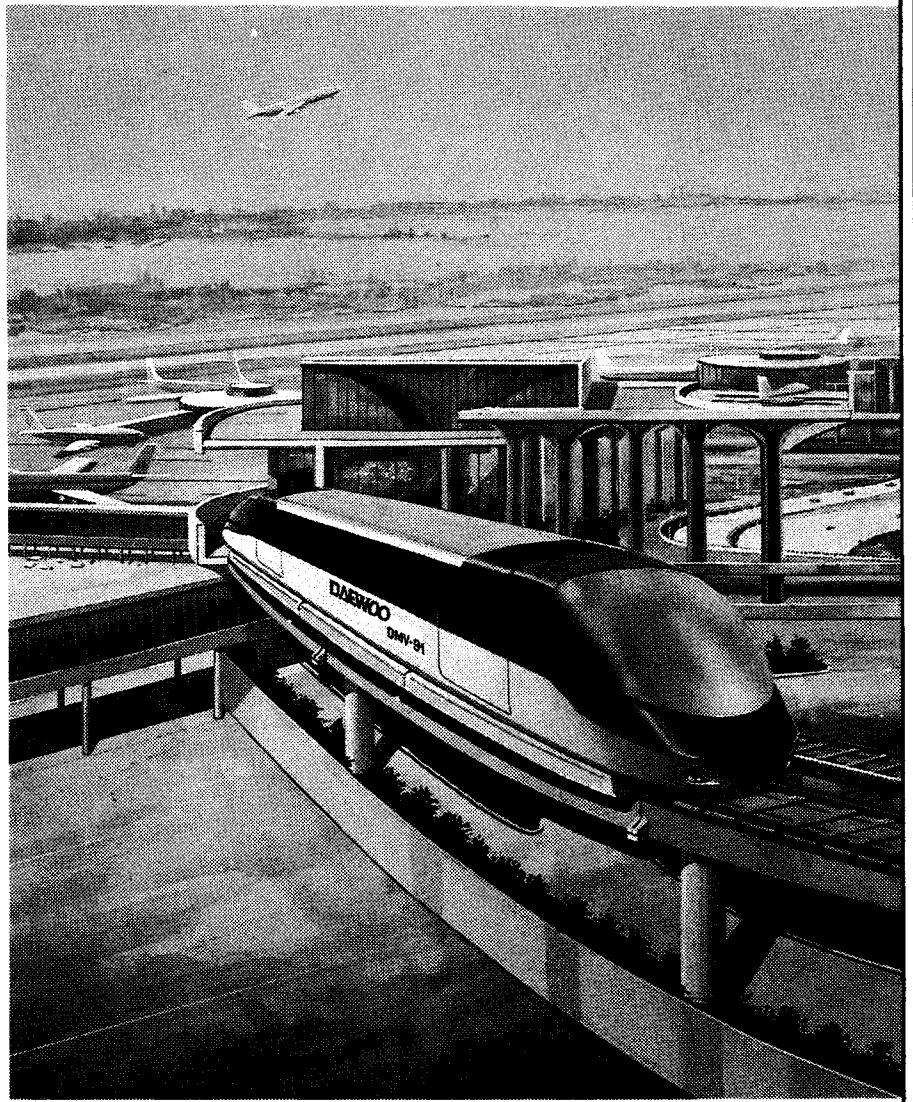
더 큰 가슴, 더 넓은 가슴, 더 뜨거운 가슴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대우가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화의 길 - 좁은 국토에 머무르지 않고 거대한 국제시장에 도전해는 해외개척의 의지, 오늘에 안주하지 않는 미래지향의 행동철학으로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 도전, 희생의 대우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역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대우의 연변한 정신(精神史)! 그것은 바로 더 큰 가슴, 더 넓은 가슴, 더 뜨거운 가슴으로 세계를 안으려는 여러분, 이 땅의 대학인들의 열정에 맞닿아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한결같은 젊은 기상으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우, 여러분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



■ 우리에게 위험은 기회일 뿐이며, 끊임한 실현되기 위한 청사진에 다름아니다. (사진은 꿈의 운송수단이라 불리는 자기부상 열차, 대우가 산학협동 연구의 선구자로서 개발해 '92년 7월 40인승이 선반열차에 적용되었다)